

고준희양 '외압에 의한 갈비뼈 골절'

국과수 부검결과... '뒤쪽 갈비뼈 3곳 살아있을 때 골절·여러 차례 외부 압력' 소견

고준희(당시 5세)양이 '외압에 의한 충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준희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몸통 뒤쪽 갈비뼈 3곳이 살아있을 때 외압에 의해 골절됐고 여러 차례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됐다는 소견을 내놨다.

또한 친부 고모(37)씨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준희양을 발로 밟은 적 있었다"며 "사망 일주일 전부터 걸어다니지 못했다"는 진술처럼 실제 무릎출혈이 있었다는 부검 소견도 있었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고씨와 내연녀 이모(36)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해 사인을 명확히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부검 결과를 보면 외부 압력 정황이 많아 부모 학대로 준희양이 숨졌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씨 등은 지난해 4월 초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숨진 준희양을 지난해 4월 27일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고씨와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내연녀 이씨의 어머니 김모(62)씨는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고씨 등과 함께 송치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상세주소 윈스톱 처리서비스 본격 시행

윈스톱 등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전주 시민들은 앞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때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한번만 가면 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2개월간 시범운영했던 상세주소 윈스톱 처리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윈스톱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동·층·호 등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택배와 우편물 분실 등 생활 불편을 겪어 왔으며 거주자가 주소정정 신청 시 직접 도로명주소 부서와 동 주민센터를 총 3회 방문해야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한번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상세주소 윈스톱 처리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부여하는 법정주소다. /채규남 기자



빛방울 맺힌 붉은망개열매 겨울 기운을 해갈하는 반가운 겨울비가 내렸던 17일 오후 어느 들녘에서 망개열매에 빗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지혜의 원탁·현장방문'

첫 행보로 완산구 동서학동·서서학동에서 시민들 의견 수렴·민생현장 방문

김승수 전주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민들을 직접 찾아서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 등 전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사업들을 공유했다.

김 시장은 17일 33개 동을 순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민생현장을 찾은 2018년 전주시 지혜의 원탁 및 현장방문의 첫 행보로 동서학동과 서서학동 주민들을 찾아가 "전주의 지도를 보면 운명을 바꿀 공간이 서학동과 한옥마을을 포함한 구도심"이라며 "구도심 100만평은 전주의 운명을 바꾸고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만들 공간으로 아시아의 뜨거운 심장으로서 만

들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문한 동서학동과 서서학동은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과 인접한데다 대한민국 무형유산의 보고인 국립무형유산원, 서학동 예술인마을 등이 위치해 있어 전주 구도심 아시아 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의 주요한 축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는 이번 지혜의 원탁과 민생현장 방문에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강화 △미래 명품도시 기반 구축 △가장 인간적인 복지정책 확대의 시정 4대 목표의 성공적인 추진 등 지역발전 위한 시민들의 생

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된 연두순방에서 지역 현인인 △구도심 아시아 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 △서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사업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농촌관광 거점마을 '일색장 명화마을' 조성 △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서학예술마을 현장센터와 초록우산 종합복지관 소나무공공체, 올해 신규 등록원 영동아파트 경로당 등 동서학동, 서서학동 민생현장을 방문 해 생생한 목소리도 청취했다.

처음 실시된 이번 연두순방 및 현장방문 시에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 각 동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8 지혜의 원탁 및 현장방문'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시민들의 삶과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켜 글로벌 리더도시로 만들겠다는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플랜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가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시기가 왔다. 가장 국적인 도시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됐다"며 "앞으로 수년간 이 우리 전주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전주소 아시아 문화심장터를 중심으로 멋진 전주소 도약해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전주시, 2월말까지 신청 접수

전주시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비로 총 5억3,500만원(국비 468, 지방비 117)을 확보, 총 172ha의 논 면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고 판로가 잘 마련된 조식묘와 지역별 특화작물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무와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의 5개 작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쌀 변동 작물금을 수령한 농지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최소 1,000㎡)할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

인)이다.

평균 지원단가는 1ha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꽃거름 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 등이며 지원금은 하반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22일부터 2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자급률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쌀 공급 과잉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보전 및 안정도모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이수택 교수, 소화기내시경학회 회장 취임

전북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수택 교수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제37대 회장에 취임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 교수는 지난해 말 열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임기는 1년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1976년 창립해 현재 회원이 8,000여명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회 중의 하나로 소화기 내시경 검사와 소화기질환 치료 및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수택 신임 회장은 "학술활동을 강화해 회원들의 다양한 학문적 욕구를

충족하고 학회의 학술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소화기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공익사업으로 사회공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학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수택 회장은 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북대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맡고 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동대학에서 석사, 전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로체스터대학에서 고등연구에서 연수했다. 지난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채규남 기자

전주서 인테리어 공사중 천장 붕괴... 1명 사망

17일 오전 10시 38분께 전주서 완산구에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1층 천장이 무너져 근로자 한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층에 근로자 6명이 있었고 5

명은 천장이 무너지기 전에 피해 목숨을 건졌다.

사망한 근로자 또한 대피하려 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기자

무주 클럽에서 디제잉 바뀌치기 한 20대 딸미

무주경찰서는 17일 야간진조물침입 절도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무주군 설천면의 한 클럽에서 천만원 상당의 디제잉 장비를 동원 모델의 구형제품으로 바뀌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럽 주인 B(57)씨는 장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가 해당 클럽에서 일하며 고가의 디제잉 장비가 탐이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국립예술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